

중동 분쟁 피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 돕는다

전주시, 수출환경 악화·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30억원 규모 특별자금 긴급 지원 추진

전주시가 중동 분쟁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로 했다.

시는 이날 중 중동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중동 분쟁 대응 피해기업 특별용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외 여건 변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돕기 위해 추진 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 및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출 또는 원자재 수입 실적 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용자 한도는 최대 3억 원 이내로,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지원된다. 5000만 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이 지원된다.

대출은 전주시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용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3일 대출은 전주시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tglassk10@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화(063-281-2088)로 문의하면 된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출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 남천교 일원 화사해졌다

전주시, 사계절 화사한 꽃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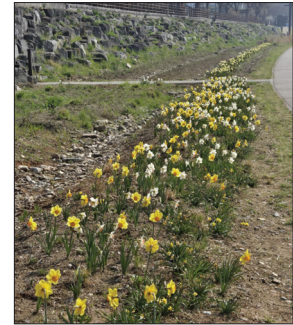
전주한옥마을 인근 전주천 남천교 일대에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1년 내내 꽃내음과 화사함을 선사할 꽃밭이 조성됐다.

전주시는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위해 전주천 남천교 주변 유류 하천부지 약 1200㎡를 활용해 계절별 꽃이 어우러지는 경관형 꽃밭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천 경관 개선과 더불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과 도심 속 자연친화적 여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곳에 봄·여름·가을 계절에 피는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수선화·붓꽃(봄) △부처꽃·향동골(여름) △참하숙부쟁이·파니콤(가을) 등 계절별로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꽃을 식재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



기로 했다.

또한 시는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이달 중 전주천 사전다리~오목교 구간에 거점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거점형 정원이 조성되면 남천교 사계절 꽃밭과 함께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맞춤형 교육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도모

전주시, '전주 함께감탄' 탄소중립 시민교육 운영



전주시가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 함께감탄,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총 2만 7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미래세대의 흥미를 높이는 '탄소중립 주제 아동극'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영상 송출'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가 직접 양성한 탄소중립 시민강사 30명은 교육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자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6개 기관에서 561회(1만1725명)의 교육을 신청했다. 시는 이 가운데 459회(9409명)를 우선 선정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전주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된 12가지 표준 교안을 기반으로, 기후 위기의 기본 개념부터 일상 속 실천 방법까지 폭넓게 다룬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교육 주제는 △자원순환(미취학아동) △물 절약(미취학아동) △순환이(초1) △생태 감수성(초2) △건강한 먹거리(초3) △전주의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초4) △지구를 살리는 착한 에너지(초5) △우리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계(초6) △건물 에너지(중1~2) △패스트패션(중1~2) △탄소중립 실천(성인)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시니어)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시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자의 탄소중립 실천 변화를 모니터링해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들러 5~7세 유아 대상 탄소중립 아동극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넓은 장소를 대관해 더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동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35회 교육을 통해 약 11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교육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권희성 기자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학생들이 전주를 찾아 전주의 산업과 문화를 배웠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학생단, 전주 방문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학생들이 전주를 찾아 전주의 산업과 문화를 배웠다.

전주시는 싱가포르 공립전문대학인 테마섹 폴리테크닉(이하 테마섹) 대학생 20여 명이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대표 공립전문대학인 테마섹 대학은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내에서 우수한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학생들의 방문은 지난해 9월 전주미래도시포럼에 연사로 참여한 우탄기 테마섹 부총장과 전주시의 우호적 관계를 계기로 추진됐다.

특히, 테마섹 학생단은 전주의 첨단 기술 체험을 위해 지역 내 유관 시설들을 둘러보고,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간 교류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테마섹 방문단은 지난 5일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일대를 둘러 보며 전주의 전통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6일에는 전주의 첨단 기술 체험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찾아 ICT·문화콘텐츠 시설을 견학하고, 입주기업 방문을 통해 지역 기반 스타트업 사례를 배웠다.

이들은 오는 7일에는 전주첨단벤처 단지를 견학한 뒤 전주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테마섹 학생단의 방문 프로그램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전주의 ICT·콘텐츠 산업 현황을 직접 경험하고,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인세대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폐렴의 경우 국내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6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평생 1

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대상포진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 80세 이상 일반 시민들도 본인부담금 1만9610원에 접종

을 받을 수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전주시역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악성종양·면역결핍자, 중증도 이상 급성 질환자와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인 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림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